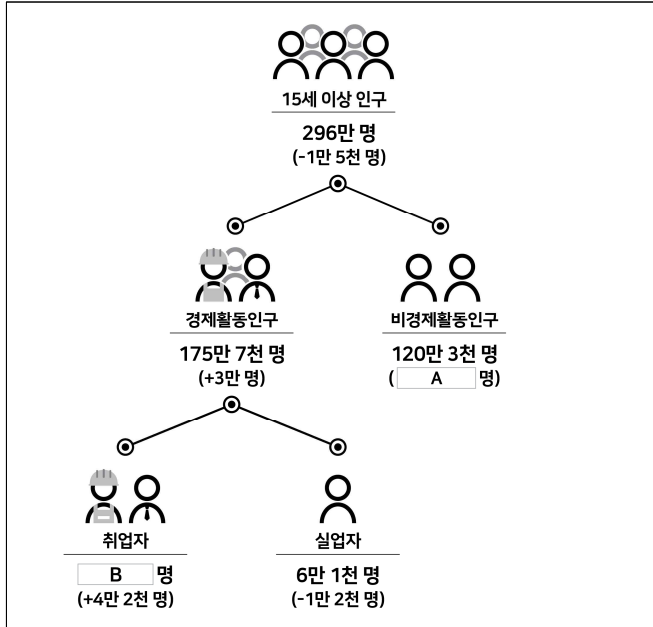


자료해석영역

문 1. 다음 <그림>은 2021년 7월 ‘갑’지역의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정리한 자료이다. <그림>의 A, B에 해당하는 값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림〉 2021년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 ()는 2020년 7월 대비 증감 인구수임.

AB

- | | |
|----------|---------|
| ① -4만 5천 | 169만 6천 |
| ② -4만 5천 | 165만 4천 |
| ③ -1만 2천 | 172만 7천 |
| ④ -1만 2천 | 169만 6천 |
| ⑤ +4만 2천 | 172만 7천 |

문 2. 다음 <표>는 2017 ~ 2021년 ‘갑’국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따른 특허심판 청구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따른 특허심판 청구건수

(단위: 건)

연도	청구인	내국인		외국인	
	피청구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7		765	270	204	172
2018		889	1,970	156	119
2019		795	359	191	72
2020		771	401	93	230
2021		741	213	152	46

-〈보기〉

- ㄱ. 2019년 청구인이 내국인인 특허심판 청구건수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50 % 이상이다.
- ㄴ. 2021년 피청구인이 내국인인 특허심판 청구건수는 피청구인이 외국인인 특허심판 청구건수의 3배 이상이다.
- ㄷ. 2017년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청구한 특허심판 청구건수는 2020년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청구한 특허심판 청구건수보다 많다.

- ① $\neg$
- ② $\sqsubset$
- ③ $\neg, \sqsubset$
- ④ $\sqsubset, \sqsubset$
- ⑤ $\neg, \sqsubset, \sqsubset$

문 3. 다음 <보고서>는 2018 ~ 2021년 ‘갑’국의 생활밀접업종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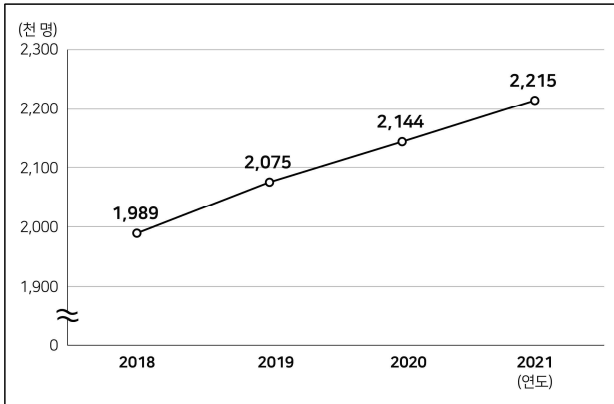
— <보고서> —

생활밀접업종은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과 같이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이다.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수는 2021년 현재 2,215천 명으로 2018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 2018년 대비 2021년 생활밀접업종 중 73개 업종에서 사업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 중 스포츠시설운영업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펜션·게스트하우스, 애완용품점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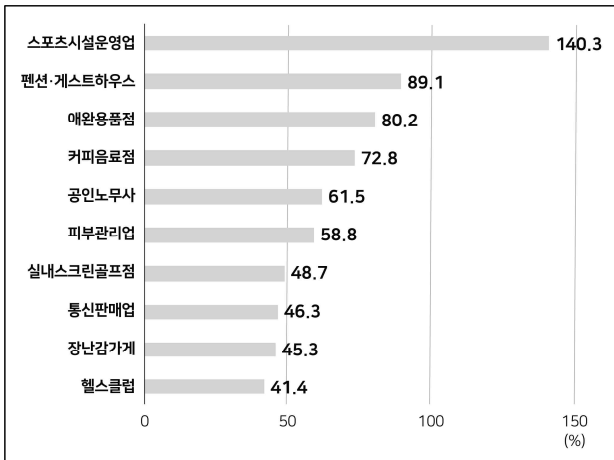
그러나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사회적 현상은 관련 업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병·의원 사업자 수는 2018년 이후 매년 감소하였다. 또한, 2018년 이후 예식장과 결혼상담소의 사업자 수도 각각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전문직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활밀접업종을 소매, 음식, 숙박, 병·의원, 전문직, 교육, 서비스의 7개 그룹으로 분류했을 때 전문직 그룹의 2018년 대비 2021년 사업자 수 증가율이 17.6%로 가장 높았다.

①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수



② 2018년 대비 2021년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수 증가율 상위 10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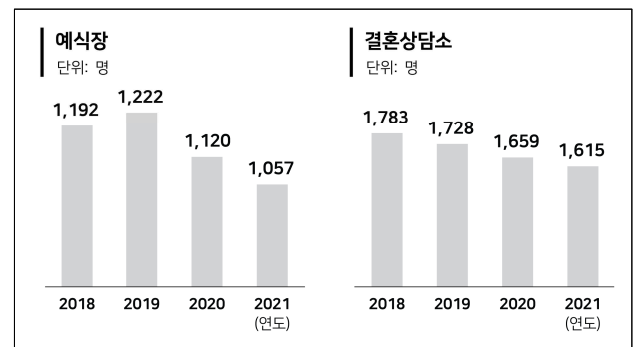


③ 주요 진료과목별 병·의원 사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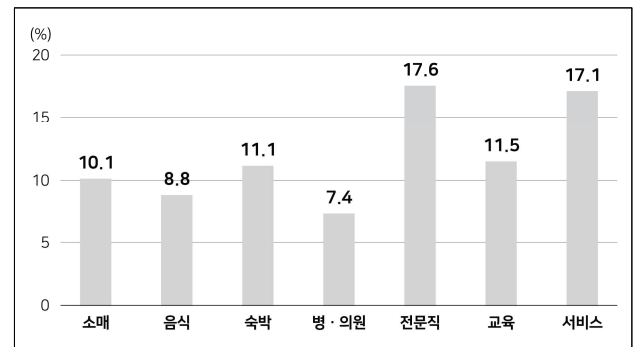
(단위: 명)

진료과목 \ 연도	2018	2019	2020	2021
신경정신과	1,270	1,317	1,392	1,488
가정의학과	2,699	2,812	2,952	3,057
피부과·비뇨의학과	3,267	3,393	3,521	3,639
이비인후과	2,259	2,305	2,380	2,461
안과	1,485	1,519	1,573	1,603
치과	16,424	16,879	17,217	17,621
일반외과	4,282	4,369	4,474	4,566
성형외과	1,332	1,349	1,372	1,414
내과·소아과	10,677	10,861	10,975	11,130
산부인과	1,726	1,713	1,686	1,663

④ 예식장 및 결혼상담소 사업자 수



⑤ 2018년 대비 2021년 생활밀접업종의 7개 그룹별 사업자 수 증가율



- 문 4. 다음 <표>는 ‘갑’국 A 위원회의 24 ~ 26차 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 위원회의 24 ~ 26차 회의 심의결과

회의 위원	회의 여부	24		25		26	
		동의	부동의	동의	부동의	동의	부동의
기획재정부장관		○		○		○	
교육부장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행정안전부장관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보건복지부장관		○		○		○	
환경부장관			○	○			○
고용노동부장관			○		○	○	
여성가족부장관		○		○		○	
국토교통부장관		○		○		○	
해양수산부장관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문화재청장		○		○		○	
산림청장		○			○	○	

※ 1) A 위원회는 <표>에 제시된 16명의 위원으로만 구성됨.

2) A 위원회는 매 회차 개최 시 1건의 안건만을 심의함.

<보 기>

- ㄱ. 24 ~ 26차 회의의 심의안건에 모두 동의한 위원은 6명이다.
 ㄴ. 심의안건에 부동의한 위원 수는 매 회차 증가하였다.
 ㄷ. 전체 위원의 $\frac{2}{3}$ 이상이 동의해야 심의안건이 의결된다면, 24 ~ 26차 회의의 심의안건은 모두 의결되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문 5. 다음 <표>는 1990년대 이후 A ~ E 도시의 시기별 및 자본금액별 창업 건수에 관한 자료이고, <보고서>는 A ~ E 중 한 도시의 창업 건수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고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도시는?

<표> A ~ E 도시의 시기별 및 자본금액별 창업 건수

(단위: 건)

도시	시기 자본 금액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 이후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A		198	11	206	32	461	26	788	101
B		46	0	101	5	233	4	458	16
C		12	2	19	17	16	17	76	14
D		27	3	73	34	101	24	225	27
E		4	0	25	0	53	3	246	7

<보고서>

이 도시의 시기별 및 자본금액별 창업 건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모든 시기에서 자본금액 1천만 원 미만 창업 건수가 자본금액 1천만 원 이상 창업 건수보다 많다. 둘째, 자본금액 1천만 원 미만 창업 건수와 1천만 원 이상 창업 건수의 차이는 2010년대가 2000년대의 2배 이상이다. 셋째, 2020년 이후 전체 창업 건수는 1990년대 전체 창업 건수의 10배 이상이다. 넷째, 2020년 이후 전체 창업 건수 중 자본금액 1천만 원 이상 창업 건수의 비중은 3% 이상이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문 6. 다음 <표>는 ‘갑’국의 원료곡종별 및 등급별 가공단가와 A ~ C 지역의 가공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원료곡종별 및 등급별 가공단가
(단위: 천 원/톤)

원료곡종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쌀	118	109	100
현미	105	97	89
보리	65	60	55

<표 2> A ~ C 지역의 원료곡종별 및 등급별 가공량
(단위: 톤)

지역	원료곡종	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A	쌀	27	35	25	87
	현미	43	20	10	73
	보리	5	3	7	15
B	쌀	23	25	55	103
	현미	33	25	21	79
	보리	9	9	5	23
C	쌀	30	35	20	85
	현미	30	37	25	92
	보리	8	30	2	40
전체	쌀	80	95	100	275
	현미	106	82	56	244
	보리	22	42	14	78

※ 가공비용 = 가공단가 × 가공량

— <보 기> —

- ㄱ. A 지역의 3등급 쌀 가공비용은 B 지역의 2등급 현미 가공비용보다 크다.
 ㄴ. 1등급 현미 전체의 가공비용은 2등급 현미 전체 가공비용의 2배 이상이다.
 ㄷ. 3등급 쌀과 3등급 보리의 가공단가가 각각 90천 원/톤, 50천 원/톤으로 변경될 경우, 지역별 가공비용 총액 감소폭이 가장 작은 지역은 A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 문 7. 다음 <표>는 재해위험지구 ‘갑’, ‘을’, ‘병’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이다. ‘편익’, ‘피해액’, ‘재해발생위험도’ 3개 평가 항목 점수의 합이 큰 지역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갑’ ~ ‘병’지역의 평가 항목별 등급

평가 항목 \ 지역	편익	피해액	재해발생위험도
갑	C	A	B
을	B	D	A
병	A	B	C

<표 2> 평가 항목의 등급별 배점

(단위: 점)

평가 항목 \ 등급	편익	피해액	재해발생위험도
A	10	15	25
B	8	12	17
C	6	9	10
D	4	6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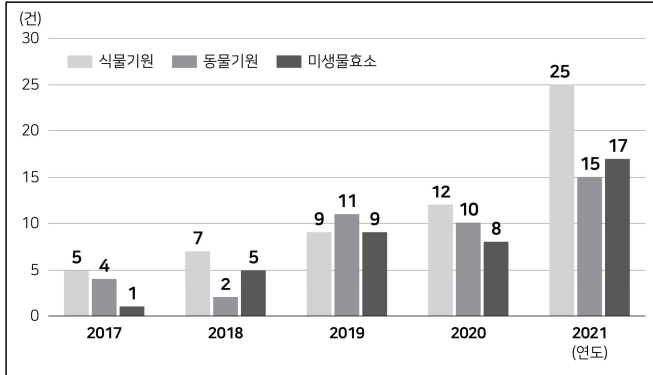
— <보 기> —

- ㄱ. ‘재해발생위험도’ 점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피해액’ 점수 차이는 ‘재해발생위험도’ 점수 차이보다 크다.
 ㄷ. ‘피해액’ 점수와 ‘재해발생위험도’ 점수의 합이 가장 큰 지역은 ‘갑’이다.
 ㄹ. ‘갑’지역의 ‘편익’ 등급이 B로 변경되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갑’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문 8. 다음 <그림>은 2017 ~ 2021년 ‘갑’국의 반려동물 사료 유형별 특허 출원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반려동물 사료 유형별 특허 출원건수



※ 반려동물 사료 유형은 식물기원, 동물기원, 미생물효소로만 구분함.

— <보 기> —

- ㄱ. 2017 ~ 2021년 동안의 특허 출원건수 합이 가장 작은 사료 유형은 ‘미생물효소’이다.
 ㄴ. 연도별 전체 특허 출원건수 대비 각 사료 유형의 특허 출원건수 비율은 ‘식물기원’이 매년 가장 높다.
 ㄷ. 2021년 특허 출원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료 유형은 ‘식물기원’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 문 9. 다음 <표>는 2019년과 2020년 지역별 전체주택 및 빈집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A ~ C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19년과 2020년 지역별 전체주택 및 빈집 현황
(단위: 호, %)

지역	연도 구분	2019			2020		
		전체주택	빈집	빈집비율	전체주택	빈집	빈집비율
서울특별시		2,953,964	93,402	3.2	3,015,371	96,629	3.2
부산광역시		1,249,757	109,651	8.8	1,275,859	113,410	8.9
대구광역시		800,340	40,721	5.1	809,802	39,069	4.8
인천광역시		1,019,365	66,695	6.5	1,032,774	65,861	6.4
광주광역시		526,161	39,625	7.5	538,275	41,585	7.7
대전광역시		492,797	29,640	6.0	496,875	26,983	5.4
울산광역시		391,596	33,114	8.5	394,634	30,241	7.7
세종특별자치시		132,257	16,437	12.4	136,887	14,385	10.5
경기도		4,354,776	278,815	6.4	4,495,115	272,358	6.1
강원도		627,376	84,382	13.4	644,023	84,106	13.1
충청북도		625,957	77,520	12.4	640,256	76,877	12.0
충청남도		850,525	107,609	12.7	865,008	106,430	12.3
전라북도		724,524	91,138	12.6	741,221	95,412	12.9
전라남도		787,816	121,767	15.5	802,043	122,103	15.2
경상북도		1,081,216	143,560	13.3	1,094,306	139,770	12.8
경상남도		1,266,739	147,173	11.6	1,296,944	150,982	11.6
제주특별자치도		241,788	36,566	15.1	246,451	35,105	14.2
전국		18,126,954	1,517,815	8.4	18,525,844	1,511,306	8.2

$$\text{빈집비율}(\%) = \frac{\text{빈집}}{\text{전체주택}} \times 100$$

— <보고서> —

2020년 우리나라 전체주택 수는 전년 대비 39만 호 이상 증가하였으나 빈집 수는 6천 호 이상 감소하여 빈집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빈집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A] 개 지역에서 빈집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빈집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B] 였다. 빈집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빈집비율 차이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이 [C] 하였다.

- | | A | B | C |
|---|---|-------|----|
| ① | 5 | 광주광역시 | 감소 |
| ② | 5 | 전라북도 | 증가 |
| ③ | 6 | 광주광역시 | 증가 |
| ④ | 6 | 전라북도 | 증가 |
| ⑤ | 6 | 전라북도 | 감소 |

- 문 10. 다음 <표>와 <보고서>는 2021년 ‘갑’국의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2021년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학년	1	2	3	4	5	6	합
오후 돌봄 교실	학생 수	124,000	91,166	16,421	7,708	3,399	2,609	245,303
	비율	50.5	37.2	6.7	3.1	1.4	1.1	100.0
저녁 돌봄 교실	학생 수	5,215	3,355	772	471	223	202	10,238
	비율	50.9	32.8	7.5	4.6	2.2	2.0	100.0

<표 2> 2021년 지원대상 유형별 오후돌봄교실 이용학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지원대상 유형	우선지원대상					일반 지원대상	합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기타	소계		
오후 돌봄 교실	학생 수	23,066	6,855	174,297	17,298	221,516	23,787	245,303
	비율	9.4	2.8	71.1	7.1	90.3	9.7	100.0

— <보고서> —

2021년 ‘갑’국의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은 오후돌봄교실 245,303명, 저녁돌봄교실 10,238명이다. 오후돌봄교실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초등학교의 98.9%가 참여하고 있다.

오후돌봄교실의 우선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기타로 구분되며, 맞벌이 가정이 전체 오후돌봄교실 이용학생의 71.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가정이 9.4%로 많다.

저녁돌봄교실의 경우 1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19시를 넘은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는 학생 비중은 11.2%에 불과하다. 2021년 현재 저녁돌봄교실 이용학생은 1~2학년이 8,570명으로 전체 저녁돌봄교실 이용학생의 83.7%를 차지한다.

초등돌봄교실 담당인력은 돌봄전담사, 현직교사, 민간위탁 업체로 다양하다. 담당인력 구성은 돌봄전담사가 10,23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직교사 1,480명, 민간위탁업체 565명 순이다. 그중 돌봄전담사는 무기계약직이 6,830명이고 기간제가 3,407명이다.

— <보 기> —

- ㄱ. 연도별 오후돌봄교실 참여 초등학교 수 및 참여율
(단위: 개, %)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학교 수		5,652	5,784	5,938	5,972	5,998	6,054
참여율		96.0	97.3	97.3	96.9	97.0	98.9

- ㄴ. 2021년 저녁돌봄교실 이용학생의 이용시간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이용시간	17~18시	17~19시	17~20시	17~21시	17~22시	합
이용학생 수		6,446	2,644	1,005	143	0	10,238
비율		63.0	25.8	9.8	1.4	0.0	100.0

- ㄷ. 2021년 저녁돌봄교실 이용학생의 학년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학년	1~2	3~4	5~6	합
이용학생 수		8,570	1,243	425	10,238
비율		83.7	12.1	4.2	100.0

- ㄹ. 2021년 초등돌봄교실 담당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돌봄전담사			현직교사	민간위탁 업체	합
	무기계약직	기간제	소계			
인력	6,830	3,407	10,237	1,480	565	12,282
비율	55.6	27.7	83.3	12.1	4.6	100.0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문 11. 다음 <표>는 2016~2020년 ‘갑’국의 해양사고 심판현황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6~2020년 해양사고 심판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 이월		96	100	()	71	89
해당 연도 접수		226	223	168	204	252
심판대상		322	()	258	275	341
재결		222	233	187	186	210

※ ‘심판대상’ 중 ‘재결’되지 않은 건은 다음 연도로 이월함.

— <보 기> —

- ㄱ. ‘심판대상’ 중 ‘전년 이월’의 비중은 2018년이 2016년보다 높다.
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2016년이다.
ㄷ. 2017년 이후 ‘해당 연도 접수’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2020년이다.
ㄹ. ‘재결’ 건수가 가장 적은 연도에는 ‘해당 연도 접수’ 건수도 가장 적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2. 다음 <표>는 ‘갑’주무관이 해양포유류 416종을 4가지 부류(A~D)로 나눈 후 2022년 기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 지표에 따라 분류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의 A, B에 해당하는 해양포유류 부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해양포유류의 IUCN 적색 목록 지표별 분류 현황
(단위: 종)

지표 \ 해양포유류 부류	A	B	C	D	합
절멸종(EX)	3	—	2	8	13
야생절멸종(EW)	—	—	—	2	2
심각한위기종(CR)	—	—	—	15	15
멸종위기종(EN)	11	1	—	48	60
취약종(VU)	7	2	8	57	74
위기근접종(NT)	2	—	—	38	40
관심필요종(LC)	42	2	1	141	186
자료부족종(DD)	2	—	—	24	26
미평가종(NE)	—	—	—	—	0
계	67	5	11	333	416

— <보고서> —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 목록(Red List)은 지구 동식물종의 보전 상태를 나타내며, 각 동식물종의 보전 상태는 9개의 지표 중 1개로만 분류된다. 이 중 심각한위기종(CR), 멸종위기종(EN), 취약종(VU) 3개 지표 중 하나로 분류되는 동식물종을 멸종우려종(threatened species)이라 한다.

조사대상 416종의 해양포유류를 ‘고래류’, ‘기각류’, ‘해달류 및 북극곰’, ‘해우류’ 4가지 부류로 나눈 후, IUCN의 적색 목록 지표에 따라 분류해 보면 전체 조사대상의 약 36%가 멸종우려종에 속하고 있다. 특히, 멸종우려종 중 ‘고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다. 또한 ‘해달류 및 북극곰’은 9개의 지표 중 멸종우려종 또는 관심필요종(LC)으로만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양포유류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26종은 자료부족종(DD)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해달류 및 북극곰’과 ‘해우류’는 자료부족종(DD)으로 분류된 종이 없다.

A

- ① 고래류
② 고래류
③ 기각류
④ 기각류
⑤ 해우류

B

- 기각류
해우류
해달류 및 북극곰
해우류
해달류 및 북극곰

문 13. 다음 <표>와 <조건>은 공유킵보드 운영사 A~D의 2022년 1월 기준 대여요금제와 대여방식이고 <보고서>는 공유킵보드 대여요금제 변경 이력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에서 (다)에 해당하는 값은? <표> 공유킵보드 운영사 A~D의 2022년 1월 기준 대여요금제 (단위: 원)

구분 \ 운영사	A	B	C	D
잠금해제료	0	250	750	1,600
분당대여료	200	150	120	60

— <조 건> —

- 대여요금 = 잠금해제료 + 분당대여료 × 대여시간
- 공유킵보드 이용자는 공유킵보드 대여시간을 분단위로 미리 결정하고 운영사 A~D의 대여요금을 산정한다.
- 공유킵보드 이용자는 산정된 대여요금이 가장 낮은 운영사의 공유킵보드를 대여한다.

— <보고서> —

2022년 1월 기준 대여요금제에 따르면 운영사 (가)는 이용자의 대여시간이 몇 분이더라도 해당 대여시간에 대해 운영사 A~D 중 가장 낮은 대여요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 공유킵보드가 1대도 대여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운영사 (가)는 2월부터 잠금해제 이후 처음 5분간 분당대여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대여요금제를 변경하였다.

운영사 (나)가 2월 기준 대여요금제로 운영사 A~D의 대여요금을 재산정한 결과, 이용자의 대여시간이 몇 분이더라도 해당 대여시간에 대해 운영사 A~D 중 가장 낮은 대여요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운영사 (나)는 3월부터 분당대여료를 50원 인하하는 것으로 대여요금제를 변경하였다.

그 결과 대여시간이 20분일 때, 3월 기준 대여요금제로 산정된 운영사 (가)와 (나)의 공유킵보드 대여요금 차이는 (다) 원이다.

- ① 200
② 250
③ 300
④ 350
⑤ 400

- 문 14. 다음 <보고서>는 2021년 ‘갑’국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 <보고서> —

2021년 전체 학생 수는 532만 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사교육의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또한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하였다. 2021년 전체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20만 원 미만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60만 원 이상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방과후학교 지출 총액은 4,434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참여율 또한 28.9%로 2019년 대비 15.0%p 이상 감소하였다.

- ① 전체 학생 수와 사교육비 총액

(단위: 만 명,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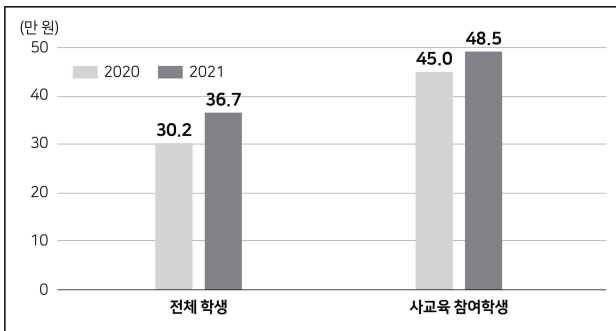
구분 \ 연도	2020	2021
전체 학생 수	535	532
사교육비 총액	19.4	23.4

- ② 사교육의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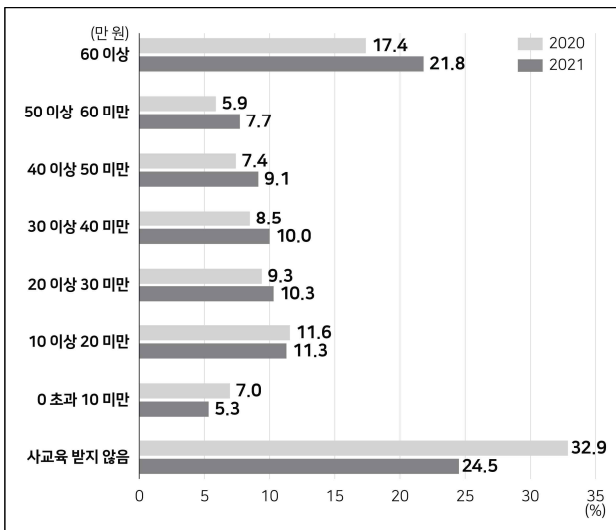
(단위: %, 시간)

구분 \ 연도	2020	2021
참여율	67.1	75.5
주당 참여시간	5.3	6.7

- ③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④ 전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분포



- ⑤ 방과후학교의 지출 총액과 참여율

(단위: 억 원, %)

구분 \ 연도	2019	2021
지출 총액	8,250	4,434
참여율	48.4	28.9

- 문 15. 다음 <표>는 ‘갑’국의 학교급별 여성 교장 수와 비율을 1980년부터 5년마다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학교급별 여성 교장 수와 비율

(단위: 명, %)

학교급 구분 \ 조사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성 교장 수	비율	여성 교장 수	비율	여성 교장 수	비율
1980	117	1.8	66	3.6	47	3.4
1985	122	1.9	98	4.9	60	4.0
1990	159	2.5	136	6.3	64	4.0
1995	222	3.8	181	7.6	66	3.8
2000	490	8.7	255	9.9	132	6.5
2005	832	14.3	330	12.0	139	6.4
2010	1,701	28.7	680	23.2	218	9.5
2015	2,058	34.5	713	24.3	229	9.9
2020	2,418	40.3	747	25.4	242	10.4

※ 1)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 = $\frac{\text{학교급별 여성 교장 수}}{\text{학교급별 전체 교장 수}} \times 100$

2) 교장이 없는 학교는 없으며, 각 학교의 교장은 1명임.

- ① 2000년 이후 중학교 여성 교장 비율은 매년 증가한다.
② 초등학교 수는 2020년이 1980년보다 많다.
③ 고등학교 남성 교장 수는 1985년이 1990년보다 많다.
④ 1995년 초등학교 수는 같은 해 중학교 수와 고등학교 수의 합보다 많다.
⑤ 초등학교 여성 교장 수는 2020년이 2000년의 5배 이상이다.

문 16. 다음 <표>는 도지사 선거 후보자 A와 B의 TV 토론회 전후 ‘가’ ~ ‘마’지역 유권자의 지지율에 대한 자료이고, <보고서>는 이 중 한 지역의 지지율 변화를 분석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 ~ ‘마’ 중에서 고르면?

<표> 도지사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전후 지지율
(단위: %)

지역 \ 시기	TV 토론회 전		TV 토론회 후	
	후보자 A	후보자 B	후보자 A	후보자 B
가	38	52	50	46
나	28	40	39	41
다	31	59	37	36
라	35	49	31	57
마	29	36	43	41

- ※ 1) 도지사 선거 후보자는 A와 B뿐임.
2) 응답자는 ‘후보자 A 지지’, ‘후보자 B 지지’, ‘지지 후보자 없음’ 중 하나만 응답하고, 무응답은 없음.

— <보고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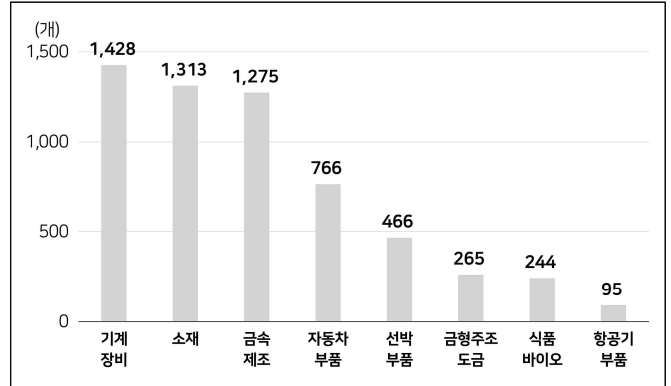
도지사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를 진행하기 전과 후에 실시한 이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도지사 후보자 지지율 변화는 다음과 같다. TV 토론회 전에는 B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A 후보자보다 10%p 이상 높게 집계되어 B 후보자가 선거에 유리한 것으로 보였으나, TV 토론회 후에는 지지율 양상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V 토론회 후 ‘지지 후보자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줄어 TV 토론회가 그동안 어떤 후보자에 투표할지 고민하던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 증가폭이 B 후보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TV 토론회를 통해 A 후보자의 강점이 더 잘 드러났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TV 토론회 후 두 후보자간 지지율 차이가 3%p 이내에 불과하여 이 지역에서 선거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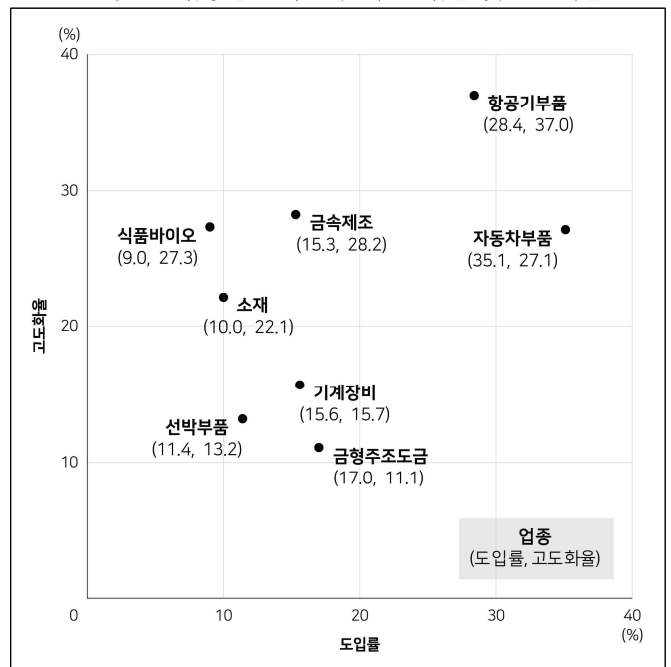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문 17. 다음 <그림>은 ‘갑’공업단지 내 8개 업종 업체 수와 업종별 스마트시스템 도입률 및 고도화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1> 업종별 업체 수



<그림 2> 업종별 스마트시스템 도입률 및 고도화율



※ 1) 도입률(%) = $\frac{\text{업종별 스마트시스템 도입 업체 수}}{\text{업종별 업체 수}} \times 100$

2) 고도화율(%) = $\frac{\text{업종별 스마트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text{업종별 스마트시스템 도입 업체 수}} \times 100$

— <보 기> —

- ㄱ. 스마트시스템 도입 업체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자동차 부품’이다.
ㄴ. 고도화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스마트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도 가장 많다.
ㄷ. 업체 수 대비 스마트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가 가장 높은 업종은 ‘항공기부품’이다.
ㄹ. 도입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고도화율도 가장 낮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문 18. 다음 <표>는 운전자 A ~ E의 정지시거 산정을 위해 ‘갑’시험장에서 측정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에 근거하여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의 운전자별 정지시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운전자 A ~ E의 정지시거 산정을 위한 자료

(단위: m/초, 초, m)

운전자	구분 자동차	운행속력	반응시간	반응거리	마찰계수	
					맑은 날	비 오는 날
A	가	20	2.0	40	0.4	0.1
B	나	20	2.0	()	0.4	0.2
C	다	20	1.6	()	0.8	0.4
D	나	20	2.4	()	0.4	0.2
E	나	20	1.4	()	0.4	0.2

<정 보>

- 정지시거 = 반응거리 + 제동거리
- 반응거리 = 운행속력 × 반응시간

$$\text{○ 제동거리} = \frac{(\text{운행속력})^2}{2 \times \text{마찰계수} \times g}$$

(단, g 는 중력가속도이며 10 m/초^2 으로 가정함)

	운전자	맑은 날 정지시거[m]	비 오는 날 정지시거[m]
①	A	120	240
②	B	90	160
③	C	72	82
④	D	98	158
⑤	E	78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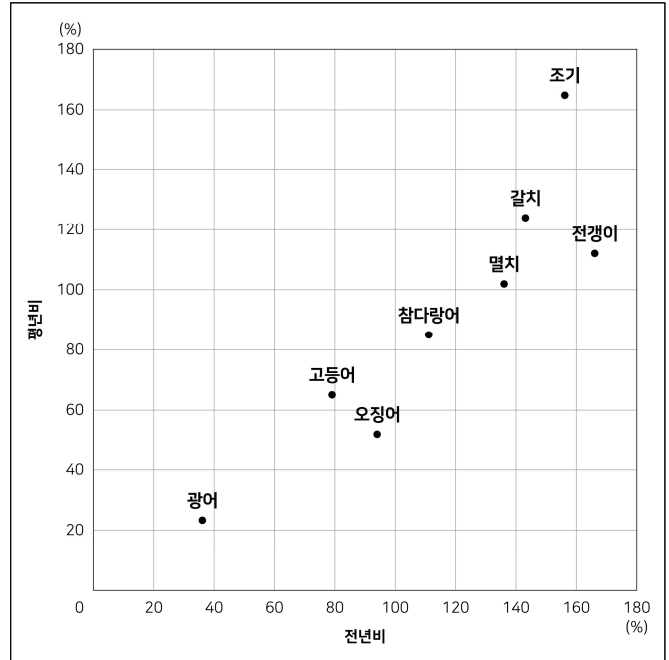
문 19. 다음 <표>와 <그림>은 ‘갑’국 8개 어종의 2020년 어획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8개 어종의 2020년 어획량

(단위: 톤)

어종	갈치	고등어	광어	멸치	오징어	전갱이	조기	참다랑어
어획량	20,666	64,609	5,453	26,473	23,703	19,769	23,696	482

<그림> 8개 어종 2020년 어획량의 전년비 및 평년비



$$\ast 1) \text{ 전년비}(\%) = \frac{\text{2020년 어획량}}{\text{2019년 어획량}} \times 100$$

$$2) \text{ 평년비}(\%) = \frac{\text{2020년 어획량}}{\text{2011 ~ 2020년 연도별 어획량의 평균}} \times 100$$

<보 기>

- ㄱ. 8개 어종 중 2019년 어획량이 가장 많은 어종은 고등어이다.
- ㄴ. 8개 어종 각각의 2019년 어획량은 해당 어종의 2011 ~ 2020년 연도별 어획량의 평균보다 적다.
- ㄷ. 2021년 갈치 어획량이 2020년과 동일하다면, 갈치의 2011 ~ 2021년 연도별 어획량의 평균은 2011 ~ 2020년 연도별 어획량의 평균보다 크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20. 다음 <표>는 2021년 A 시에서 개최된 철인3종경기 기록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 시 개최 철인3종경기 기록
(단위: 시간)

종합기록 순위	국적	종합	수영	T1	자전거	T2	달리기
1	러시아	9:22:28	0:48:18	0:02:43	5:04:50	0:02:47	3:23:50
2	브라질	9:34:36	0:57:44	0:02:27	5:02:30	0:01:48	3:30:07
3	대한민국	9:37:41	1:04:14	0:04:08	5:04:21	0:03:05	3:21:53
4	대한민국	9:42:03	1:06:34	0:03:33	5:11:01	0:03:33	3:17:22
5	대한민국	9:43:50 ()	0:03:20	5:00:33	0:02:14	3:17:24	
6	일본	9:44:34	0:52:01	0:03:28	5:25:59	0:02:56	3:20:10
7	러시아	9:45:06	1:08:32	0:03:55	5:07:46	0:03:02	3:21:51
8	독일	9:46:48	1:03:49	0:03:53	4:59:20	0:03:00 ()	
9	영국	()	1:07:01	0:03:37	5:07:07	0:03:55	3:26:27
10	중국	9:48:18	1:02:28	0:03:29	5:16:09	0:03:47	3:22:25

- ※ 1) 기록 '1:01:01'은 1시간 1분 1초를 의미함.
2) 'T1', 'T2'는 각각 '수영'에서 '자전거', '자전거'에서 '달리기'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임.
3) 경기 참가 선수는 10명뿐이고, 기록이 짧을수록 순위가 높음.

— <보 기> —

- ㄱ. '수영'기록이 한 시간 이하인 선수는 'T2'기록이 모두 3분 미만이다.
ㄴ. 종합기록 순위 2 ~ 10위인 선수 중, 종합기록 순위가 한 단계 더 높은 선수와의 '종합'기록 차이가 1분 미만인 선수는 3명뿐이다.
ㄷ. '달리기'기록 상위 3명의 국적은 모두 대한민국이다.
ㄹ. 종합기록 순위 10위인 선수의 '수영'기록 순위는 '수영'기록과 'T1'기록의 합산 기록 순위와 다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1. 다음 <표>는 제품 A ~ E의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제품 A ~ E 중 매출액이 가장 작은 제품은?

<표> 제품 A ~ E의 고정원가, 변동원가율, 제조원가율
(단위: 원, %)

제품 \ 구분	고정원가	변동원가율	제조원가율
A	60,000	40	25
B	36,000	60	30
C	33,000	40	30
D	50,000	20	10
E	10,000	50	10

※ 1) 제조원가 = 고정원가 + 변동원가

$$2) \text{고정원가율}(\%) = \frac{\text{고정원가}}{\text{제조원가}} \times 100$$

$$3) \text{변동원가율}(\%) = \frac{\text{변동원가}}{\text{제조원가}} \times 100$$

$$4) \text{제조원가율}(\%) = \frac{\text{제조원가}}{\text{매출액}} \times 100$$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다음 <표>는 2018 ~ 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매출액 및 종사자 수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 22. ~ 문 23.]

<표 1> 2018 ~ 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국내외 매출액
(단위: 억 원)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총매출액	136,493	144,521	153,867
국내 매출액	116,502	()	()
국외 매출액	19,991	21,048	17,624

<표 2> 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기업유형별 매출액 및 종사자 수
(단위: 억 원, 명)

구분 \ 기업유형	총매출액	국내 매출액	국외 매출액	종사자 수
대기업	136,198	119,586	16,612	27,249
중소기업	17,669	16,657	1,012	5,855
전체	153,867	()	17,624	33,104

<표 3> 2018 ~ 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분야별 매출액
(단위: 억 원)

분야 \ 연도	2018	2019	2020
항공유도	41,984	45,412	49,024
탄약	24,742	21,243	25,351
화력	20,140	20,191	21,031
함정	18,862	25,679	20,619
기동	14,027	14,877	18,270
통신전자	14,898	15,055	16,892
화생방	726	517	749
기타	1,114	1,547	1,931
전체	136,493	144,521	153,867

<표 4> 2018 ~ 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분야별 종사자 수
(단위: 명)

분야 \ 연도	2018	2019	2020
A	9,651	10,133	10,108
B	6,969	6,948	6,680
C	3,996	4,537	4,523
D	3,781	3,852	4,053
E	3,988	4,016	3,543
화력	3,312	3,228	3,295
화생방	329	282	228
기타	583	726	674
전체	32,609	33,722	33,104

※ ‘갑’국 방위산업 분야는 기타를 제외하고 항공유도, 탄약, 화력, 함정, 기동, 통신전자, 화생방으로만 구분함.

문 22. 위 <표>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방위산업의 국내 매출액이 가장 큰 연도에 방위산업 총매출액 중 국외 매출액 비중이 가장 작다.
 ㄴ. ‘기타’를 제외하고, 2018년 대비 2020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낮은 방위산업 분야는 ‘탄약’이다.
 ㄷ. 2020년 방위산업의 기업유형별 종사자당 국외 매출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4배 이상이다.
 ㄹ. 2020년 ‘항공유도’ 분야 대기업 국내 매출액은 14,500억 원 이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ㄹ

문 23. 위 <표>와 다음 <보고서>를 근거로 ‘항공유도’에 해당하는 방위산업 분야를 <표 4>의 A ~ E 중에서 고르면?

—<보고서>—

2018년 대비 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총매출액은 약 12.7% 증가하였으나 방위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약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타’를 제외한 7개 분야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18년 대비 2020년 방위산업 분야별 매출액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통신전자’, ‘함정’, ‘항공유도’ 분야만 증가하고 나머지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 ~ 2020년 동안 매출액과 종사자 수 모두 매년 증가한 방위산업 분야는 ‘통신전자’뿐이고, ‘탄약’과 ‘화생방’ 분야는 종사자 수가 매년 감소하였다. 특히, ‘기동’ 분야는 2018년 대비 2020년 매출액 증가율이 방위산업 분야 중 가장 높았지만 종사자 수는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2018년 대비 2020년 ‘함정’ 분야 매출액 증가율은 방위산업 전체 매출액 증가율보다 낮았으나 종사자 수는 방위산업 분야 중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의 분야별 종사자당 매출액 순위에도 변동이 있었다. 2018년에는 ‘화력’ 분야의 종사자당 매출액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함정’, ‘항공유도’ 순으로 컸다. 한편, 2020년에는 ‘화력’ 분야의 종사자당 매출액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기동’, ‘항공유도’ 순으로 컸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문 24. 다음 <표>는 2021년 국가 A ~ D의 국내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국가 A ~ D를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이 가장 적은 국가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국가별 국내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달러, 톤CO₂eq.)

구분 국가	국내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A	20조 4,941억	62,795	16.6
B	4조 9,709억	39,290	9.1
C	1조 6,194억	31,363	12.4
D	13조 6,082억	9,771	7.0

※ 1) 1인당 국내총생산 = $\frac{\text{국내총생산}}{\text{총인구}}$
2)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frac{\text{이산화탄소 총배출량}}{\text{총인구}}$

- ① A, C, B, D
- ② A, D, C, B
- ③ C, A, D, B
- ④ C, B, A, D
- ⑤ D, B, C, A

문 25. 다음 <표>는 2019 ~ 2021년 ‘갑’국의 장소별 전기차 급속충전기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장소별 전기차 급속충전기 수
(단위: 대)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다중 이용 시설	쇼핑몰	807	1,701	2,701
	주유소	125	496	()
	휴게소	()	()	2,099
	문화시설	757	1,152	1,646
	체육시설	272	498	604
	숙박시설	79	146	227
	여객시설	64	198	378
	병원	27	98	152
	소계	2,606	5,438	8,858
일반 시설	공공시설	1,595	()	()
	주차전용시설	565	898	1,275
	자동차정비소	119	303	375
	공동주택	()	102	221
	기타	476	499	522
	소계	2,784	4,550	6,145
전체		5,390	9,988	15,003

<보 기>
ㄱ. 전체 급속충전기 수 대비 ‘다중이용시설’ 급속충전기 수의 비율은 매년 증가한다.
ㄴ. ‘공공시설’ 급속충전기 수는 ‘주차전용시설’과 ‘쇼핑몰’ 급속충전기 수의 합보다 매년 많다.
ㄷ. ‘기타’를 제외하고, 2019년 대비 2021년 급속충전기 수의 증가율이 가장 큰 장소는 ‘주유소’이다.
ㄹ. 급속충전기 수는 ‘휴게소’가 ‘문화시설’보다 매년 많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